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46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롯데칠성 달림이

사이다 같은 ‘시원한 질주’ 2년 연속 전원 완주 할 것

“마라톤은 늘 목마르다!”

지난 2006년 2월 롯데칠성 광주공장 사
우들이 회사 생활의 활력소를 위해 또 건강
을 위해 마라톤으로 변신했다. 마라톤은 물
론 육상도 해 본적 없는 이들이 모여 무작
정 시작했던 달리기지만 이제는 매주 일요
일 아침, 달콤한 맛을 마다하고 훈련에
나설 정도가 됐다.

30여명 회원 사내 최고 동호회

끊임없는 질주에도 이들에게는 늘 아쉬
움이 남는다. 마라톤에 목마르다는 회원들
은 체워지지 않는 자신들의 ‘2% 목마름’
을 지칭해 아예 동호회 이름을 ‘2% 달림
이’라 지었다.
7명의 회원으로 시작했던 마라톤 동호회

‘2% 달림이’는 이제 30여명의 사우들이 참
여할 정도로 사내 최고의 동호회로 성장했
다. 꾸준한 활동을 인정받아 본사노무부생
팀으로부터 매달 동호회 지원금을 받기도
할만큼 건실함을 자랑한다.

“2% 달림이” 회원들은 마라톤을 통해 건
강과 동료애를 키우는 것은 물론 부부급실
까지 다지는 1석3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사내 동호회이지만 회원 가족들에게도 참
여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주말이면 가족들
이 함께 어울려 질주를 펼치기도 한다.

김인식(44) 회장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바람을 안고 달리다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한주의 스트레스가 땀으로 녹아내린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마라톤은 힘이 들어도 누
군가 대신 뛰어 줄 수 없는 자신과의 싸움

이지만 곁에서 함께 뛰어주는 동료와 가족
이 있기에 큰 힘을 얻고 있다”며 “마라톤을
통해 인생의 의미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동료에 키우는 활력의 장

마라톤을 건강 지킴이라 예찬하는 박용
길(40)씨는 “시간만 나면 언제든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마라톤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운동이다”며 “우리 민족정신을 기리기 위
해 또 마라톤에 대한 긍지를 높이기 위해
이번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서 건강한
질주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2% 달림이” 회원들에게 이번 3·1 마라
톤대회는 3번째 도전이다. 봄날을 활짝 여
는 대회만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
번 대회의 목표는 지난해에 이어 전원 완주



롯데칠성 광주공장 마라톤 동호회 ‘2% 달림이’ 회원들은 전원완주를 목표로 3·1 전국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를 달성하는 것이다.

50대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김신곤(54)
회원에 이번 3·1 마라톤은 자신의 뒤늦
은 마라톤 도전을 자축하는 자리가 될 전망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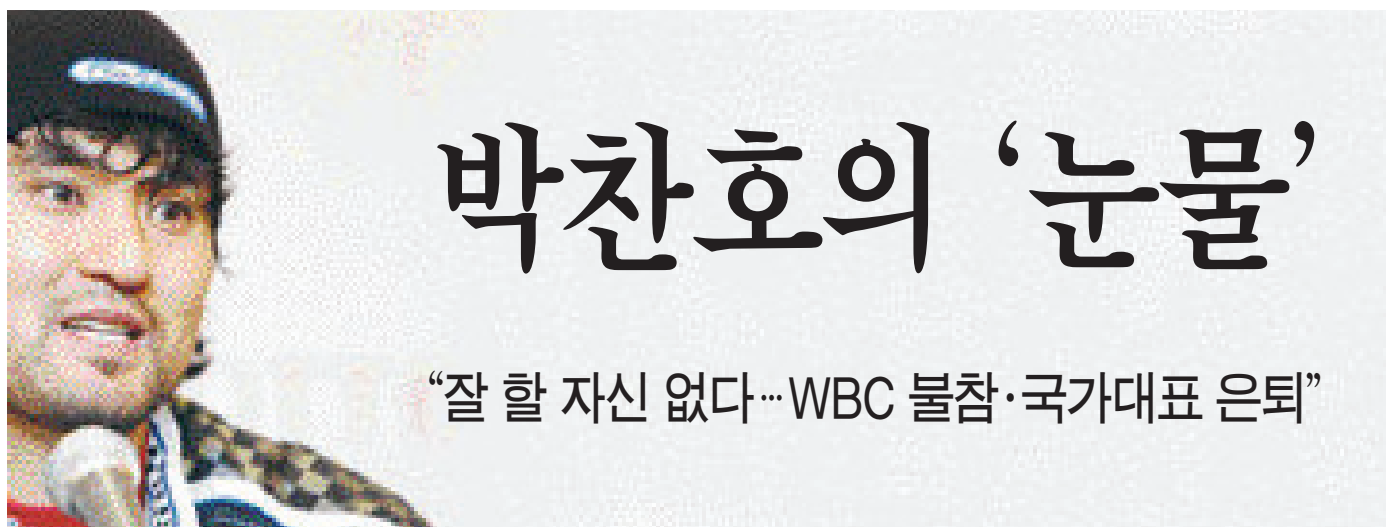
“지난해 3·1 마라톤 대회때는 막 동호회

3·1절 마라톤 세번째 도전

활동을 시작한 터라 직접 뛰지는 못하고 회
원들을 응원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
번 대회는 후배들의 권유로 뒤늦게 시작하

마라톤 인생의 1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할 걸을 내딛을 때마다 인생의 멋과 활력
이 커져 간다는 ‘2% 달림이’들의 사이다와
같은 시원한 질주는 오는 3월1일을 기약하
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찬호의 ‘눈물’

“잘 할 자신 없다...WBC 불참·국가대표 은퇴”

박찬호(36·필라델피아 필리스)가 3월 월
드베이스볼클래스(WBC)에 나가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연말 출국해 미국프로야구 필리스 구단
의 신체검사를 마치고 전날 밤 돌아온 박찬
호는 13일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대회에 못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심사숙고 끝에 결정했다는 박찬호는 “솔
직히 자신감이 없다. WBC도 잘하고 정규 시
즌에서도 잘 할 자신 없다. 대표팀 합
류를 바랐던 많은 팬에게 미안하고 사과드
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더 태극마크를 다는 일은 없
을 것”이라며 대표팀 은퇴 의사를 밝혔다.
박찬호가 출전을 포기하면서 야구 대표팀

은 베테랑 오른손 투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WBC를 준비하게 됐다.

박찬호는 대표팀을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
로 팀에서 불안정한 위상을 들었다. 지난 7
일 필라델피아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구단으
로부터 ‘출대’를 당한 탓인지 박찬호는 회견
중 예상치 못한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지난해 LA 다저스에서 불펜 투수로 재기
에 성공한 박찬호는 기본 연봉 250만달러를
받고 최대 500만달러를 받는 조건에 필라델
피아 유니폼을 입었지만 점차 구단에서 큰
기대치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

박찬호는 “루벤 아마로 주니어 필리스 단
장과 만나 WBC 참가 문제를 상의했다. 솔직
히 ‘필라델피아를 위해 뛰어 달라. 팀에서 잘
해달라’며 구단에서 WBC 출전을 만류할 것

을 기대했으나 ‘WBC에 나가지도 않고, 안 나
가도 좋고’라는 뜻을 전해들었다”고 소개했
다.

또 “선발로 뛰어도 좋고 구원으로 잘 던져
도 그만이라는 구단의 생각을 듣고 나를 선
발보다는 구원 쪽에 무게를 두고 영입했다
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팀에서 5선발 자리를 확실하게 꿰차려
면 스프링캠프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는 뜻
이었다.

박찬호는 “신체검사 후 구단이 마련한 기
자회견이 있었으나 좌투수 J.C 로메로의 약
물 복용이 발각되는 바람에 내 기자회견이
취소됐다. 그런 것을 보며 ‘내 위상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다”면서 설움에 북받
친 듯 눈물을 펄펄 쏟았다. /연합뉴스

통산 117승...필라델피아서 새 등지

박찬호 빅리거 16년

1994년 한국인 최고의 메이저리거가 탄생
했다.

정민철, 조성민, 임선동 등 쟁쟁한 동기들
의 그늘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공주
고 출신의 박찬호가 그 주인공이었다.

‘빠른 볼’을 가진 선수로만 평가받던 박찬
호는 한양대 3학년이던 1994년 LA 다저스
와 계약을 맺고, 그해 4월8일 빅리거에 첫발
을 내딛었다. 이날 박찬호는 메이저리거 역
사상 17번째로 마이너리그를 거치지 않고
메이저리거 무대를 밟은 선수로 이름을 남
겼다.

그러나 빅리거의 벽은 높았다. 데뷔 2년
동안 4경기에 출전 7.88의 평균자책점을 기
록하는 데 그친 박찬호의 첫 승은 3년 만에
나왔다. 철저부심 거친 강속구를 가다듬은

박찬호는 1996년 4월 7일 시카고 컵스를 상
대로 감각의 첫 승을 거두었고, 5월에는 시
속 161km의 강속구를 뿌렸다.

위력적인 투심과 명품 커브로 재무장한
박찬호는 1997년 14승에 이어 1998년 15승
을 신고하며 IMF로 시름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도 했다. 1998년에는 방콕
아시아게임 결승전에서 일본을 누르고 금메
달의 주역이 됐다.

2000년 18승을 거두며 최고의 한 해를 보
낸 박찬호는 2002년 5년 6천500만달러의 짝
꿍을 터트리며 텍사스로 무대를 옮겼다. 하
지만 웰스트링 부상속에 9승8패의 성적으로
텍사스에서 첫 해를 마감한 뒤, 2003년에는
부상으로 7경기에만 모습을 드러냈다.

‘막튀리’는 불명예속에 2005년 6월, 11년
만에 메이저리거 통산 100승을 기록한 박찬
호는 이후 샌디에이고와 뉴욕메츠에 이어



2009년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옮기며 재기를
준비하고 있다.

빅리거로서의 추락 속에도 한국대표팀 마
운드는 굳건히 지켜왔다. 2006년 3월 WBC
대표로 태극마크를 단 박찬호는 선발과 마
무리를 오가며 3세이브를 기록해 WBC 올
스타팀에 선정됐고, 2007년 베이징 올림
픽 아시아 예선에서는 주장으로 한국 대표
팀을 이끌기도 했다.

2009년, 대표팀 유니폼 대신 필라델피아
유니폼을 선택해야 한 ‘영원한 61번’ 박찬
호의 눈물에는 지난 16년이 담겨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끝장 승부’ 끝났다

논란이 일었던 프로야구의 ‘끝장 승부’
가 결국 폐지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이사회간담회를 열고
지난 해 실시했던 무제한 연장전 제도를
폐지하고 올 시즌에는 12회까지만 치르
기로 했다.

지난 해 처음 시행된 무제한 연장전은
진정한 승부를 가린다는 점에서 일부 팬
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일각에서는 선수
들의 체력 저하 등의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시즌 내내 논란이 됐다.

지난 시즌 13회 이상 걸린 연장전은 총
6차례 있었으며 2008년 9월3일 잠실구장
에서 벌어진 두산-한화전은 무려 5시간
51분동안 18회까지 이어져 새벽 1시에야

올 시즌 무제한 연장전 폐지

무승부, 승률 집계 때 때 결정
팀당 경기수 133경기로 확대

끝났다. 경기가 한없이 길어지면서 자정
을 넘기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자 제리
로이스터 롯데 감독을 제외한 7개 구단
사령탑은 “무제한 연장전은 선수층이 얇
은 국내 실정에 맞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이사회가 받아들인 셈이 됐다.

대신 연장 12회를 치르기도 무승부가
되면 승률 집계 때 양팀 모두 패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기로 결정, 총력전
을 부추길 전망이다. /연합뉴스

KBO 이사회는 무제한 연장전을 폐지
하는 대신 정규리그를 팀 당 126경기, 총
504경기에서 팀당 133경기, 총 532경기
로 늘리기로 했다. 경기 수가 이승엽이 56
홈런을 날렸던 2003년 수준으로 증가함
에 따라 시즌 각종 기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준플레이오프 5전3선승, 플레이
오프 7전4선승, 한국시리즈 7전4선승제
인 포스트시즌은 플레이오프를 5전3선
승제로 변경해 ‘5-5-7’제로 시행한다.

이사회는 또 월드베이스볼클래스
(WBC)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동기 부여
를 위해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FA(자유
계약선수) 취득 일수에 추가해 주기로 했
다. /연합뉴스

감잡은 탱크 “이젠 타이틀 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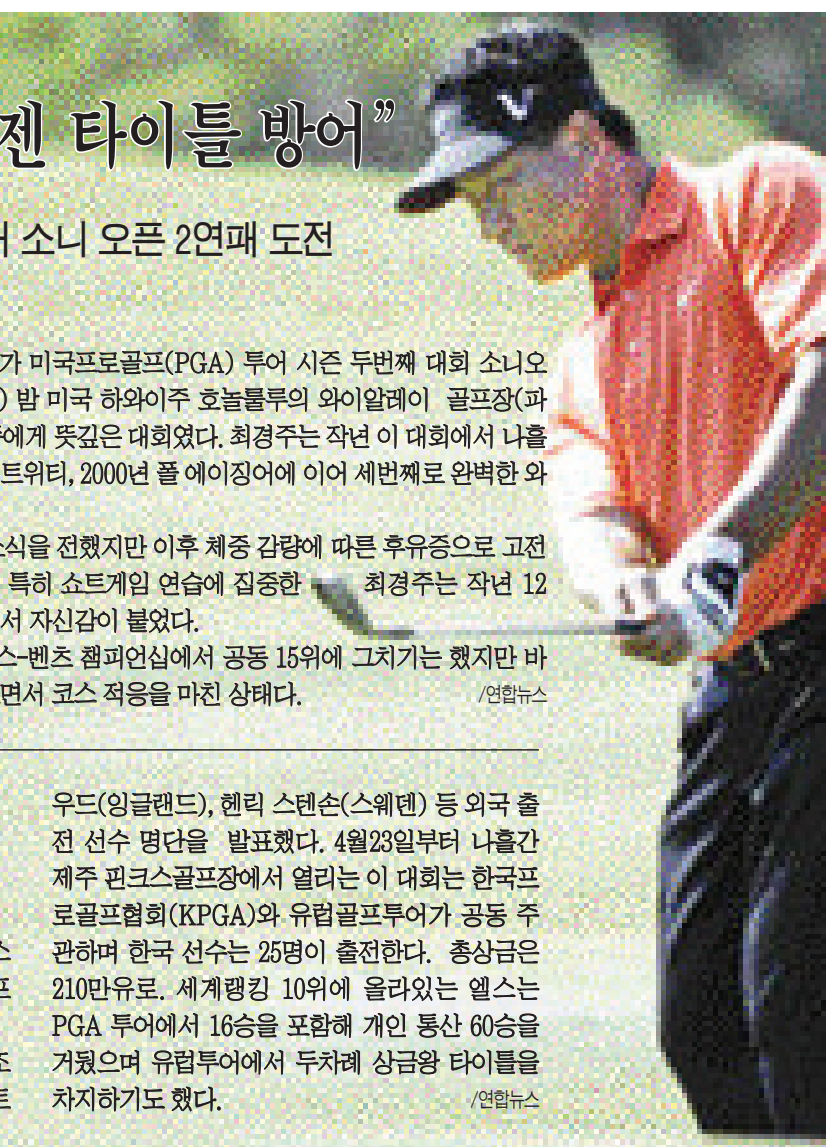
15일 하와이서 PGA투어 소니 오픈 2연패 도전

“하와이에서 우승컵을 지키겠다”

한국프로골프의 간판 최경주(39·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두번째 대회 소니오
핀에서 타이틀 방어전을 치른다. 15일(한국시간) 밤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골프장(파
70·7천600야드)에서 개막하는 소니오픈은 최경주에게 뜻깊은 대회였다. 최경주는 작년 이 대회에서 나흘
동안 단독 선두 자리를 지킨 끝에 1993년 하워드 트루티, 2000년 폴 에이징어에 이어 세번째로 완벽한 와
이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됐다.

최경주는 작년 소니오픈에서 일찌감치 우승 소식을 전했지만 이후 체중 감량에 따른 후유증으로 고전
하다 작년 말부터 서서히 컨디션을 되찾고 있다. 특히 쇼트게임 연습에 집중한 최경주는 작년 12
월 이벤트대회였던 LG스킨스게임에서 우승하면서 자신감이 불었다.

최경주는 지난 주 끝난 시즌 개막전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에서 공동 15위에 그치기는 했지만 바
닷바람이 심하게 부는 하와이에 2주 동안 머무르면서 코스 적응을 마친 상태다. /연합뉴스



‘황태자’ 에니 엘스 한국 온다

4월 발렌타인 챔피언십 참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황태자 에니 엘스
(남아공)가 4월 제주에서 열리는 유럽프로골프
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대회조직위원회는 13일 중구 소공동 웨스턴즈
선호텔에서 대회 설명회를 갖고 엘스와 리 웨스트

우드(잉글랜드), 헨릭 스텐손(스웨덴) 등 외국 출
전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4월23일부터 나흘간
제주 링크스골프장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한국프
로골프협회(KPGA)와 유럽프로투어가 공동 주
관하며 한국 선수는 25명이 출전한다. 총상금은
210만유로. 세계랭킹 10위에 올라있는 엘스는
PGA 투어에서 16승을 포함해 개인 통산 60승을
거뒀으며 유럽투어에서 두차례 상급 타이틀을
차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